

3회 페미니즘문화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3대 이화여성위원회

나 오늘 맛있는 확장한다

나의 가품한 얼굴이 포근히 담길만한 맑고한 거울 위에
아이타이너로 납땀하게 접시를 그려내고
색색의 온갖 립스틱을 손잡이로부터 갈라낸 것을
온색접시 위에 착국 뽕아올리지.

착국

그 위에 영양가 높은 Emulsion cream에 펄펄이 스그린 적당량이 들어간
시할 발락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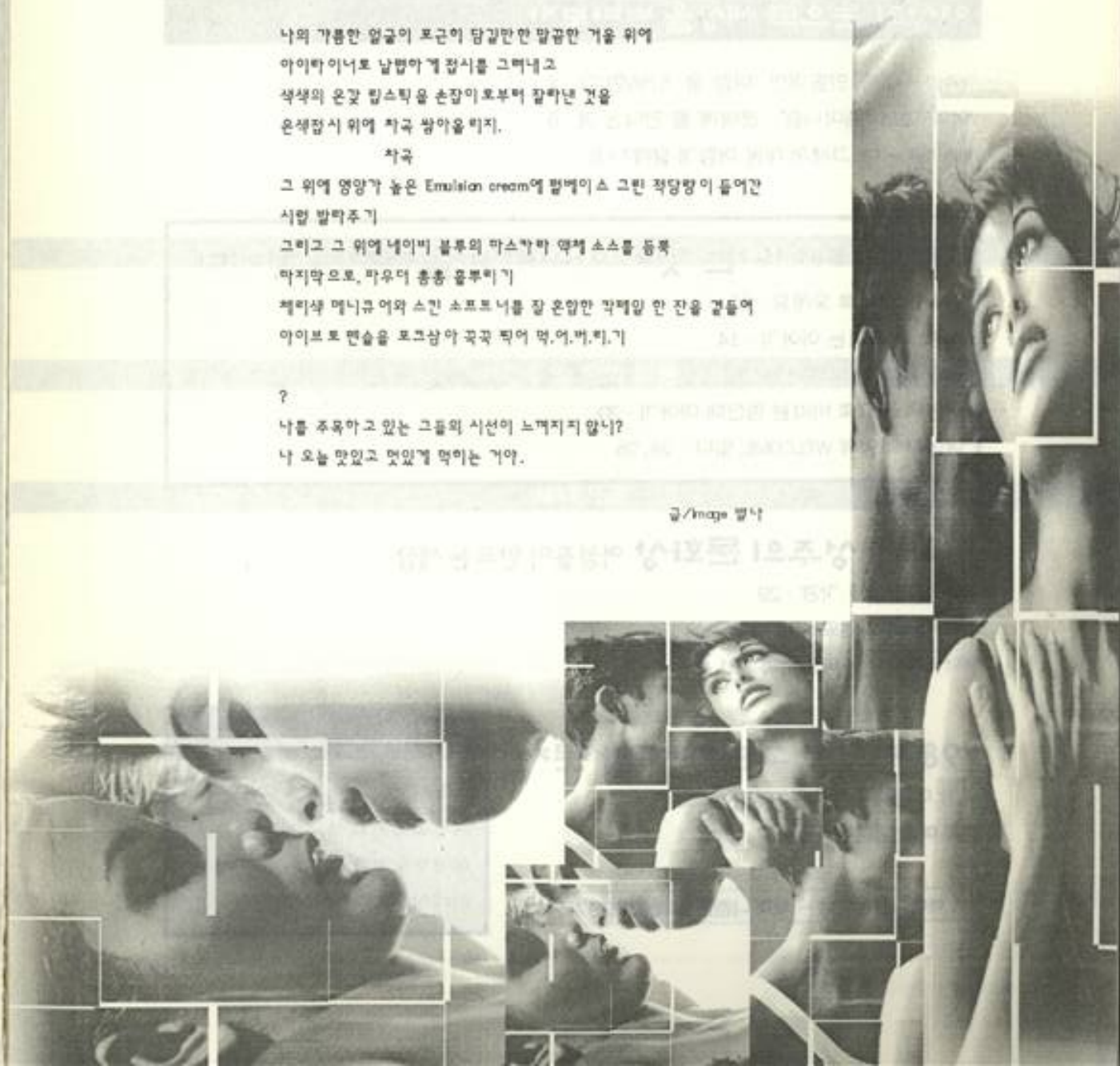
그리고 그 위에 네이비 블루의 마스크라 약해 소스를 듬뿍
마지막으로, 마우더 뽕뽕 올부리기

체리색 매니큐어와 스킨 소프트너를 잘 혼합한 약제일 한 잔을 곁들여
아이브로 뽕술을 포크삼아 꺾꺾 찍어 먹.어.바.리.기

?

나를 주목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니?
나 오늘 맛있고 멋있게 먹히는 거야.

글/Image 벨리



기획글

이제, 만들어진 '여성'을 거/부/한/다

불(3대 이화여성위원의 위원장)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몬느 드 보브아르에 의해 외쳐졌던 이 선언을 기억하는가?

여성의 억압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많이 인용되는 이 선언이 이제는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3회 페미니즘문화제를 준비하면서 보브아르의 선언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진부하게 느껴지는 이 선언이 여성억압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성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여성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다'라는 데조차 합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는.....해!' '여자가.....'

'남자는.....해!' '남자가.....'

우리의 머리속에서는 위의 말줄임표를 채울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다니고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단어들은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우리의 머리속에서 두 개의 다른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한쪽은 '남자'로 한쪽은 '여자'로 말이다.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강조해왔다. 남성과 여성은 신체부터 다르며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역할과 다른 영역이 주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생물학적 자료를 끼워 맞추어 가며 기를 쓰고 설명하려 든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리고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남성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성이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강하며 적극적이고 우월한' 남성과 다르게 '정서적이고 연약하며 소극적이고 열등한' 존재가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는 확고히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린시절부터 지켜야 할 여성으로서의 규범을 가지게 된다. 그 규정된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성은 언제나 사회의 배타적인 시선에 시달린다. (마녀로 희생되어간

여성들은 이 사회의 마이너리티다.

마이너리티라는 것은 수가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존재임을,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수많은 여성들을 잠시 생각하자) 즉, 다르다는 것이 '차이'가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도록 구조화된 '차별'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차별'을 '차이'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끔 어린시절부터 길들여져 왔다.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분리된 성역할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좀 더 자라서는 제도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관념들을 더욱 공고히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사회 문화는 또다시 억압적 관계를 재생산해내며 이 악순환의 고리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이 사회의 마이너리티다. 마이너리티라는 것은 수가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존재임을,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은 그 사회의 권력을 가진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신을 규정하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어떤 것들을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자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권력을 가진자이다. 소수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지기 힘들고 또 어렵게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쉽게 묻혀버린다. 소수자로서 여성들은 사회의 권력자인 남성의 시선으로 자신을 규정한다(즉, 다른 것들과 같이 만들어진다) 때문에 자신이 억압받고 있는 상황을 읽어내지 못하거나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억압이라고 읽어낼 여성의 언어가 없으므로) 읽어낸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수많은 탄압이 뒤따르며 또한 쉽게 묻혀진다)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이들의 논리중 하나가 '페미니즘은 편협하다'라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다른 운동을 하는 이들이 편협하다고 공격을 받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유독 페미니즘은 편협하다고 공격을 받는다. 그것은 이 사회의 객관성이라는 것이 바로 '남성'들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경험, 여성의 시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이 빠진 채 구성된 객관성은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를 편협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외롭고, 지난하고 힘든 싸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3회 페미니즘문화제를 준비하면서 가부장제의 견고한 틀에 작은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으로서의 삶을 고민하고 그것을 풀어내려는 이화인들의 몸짓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이어지고 뭉쳐져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태동시킬 힘을 모아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다. 여성주의 문화상에 응모작을 내주신 이화인들, 상황극에 참여 해주신 총연극회, 그리고 자원활동단들에 의해 3회 페미니즘문화제는 그 틀을 만들 수 있었다.

이제 그안의 삶을 채우는 작업은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칠 것이다.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그것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다. 우리를 편협하다 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편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화'에서

'페미니즘'

'문화제'를 한다는 것

큰남(교육 95)

이제 이화에서 3번째 페미니즘문화제가 시작된다.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비주류로 존재하는 만오천의 여성이 모여있는 '이화'에서.

'이화'는 여성공간이다. 하기에 '이화'에 던져지는 시선은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맥을 같이하며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다. 따라서 '이화'라는 여성공간은 이러한 남성중심 사회의 굴곡된 편견 속에서 흔히 '선택된' 그리고 '좀 배워먹은', '특권의식으로 잘난 척 하는' 여성들의 집단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이화가 '여성학의 메카'로 일컬어지는 데에까지 그 궤를 같이하여 여성학 자체를 여성의 각자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중산층 여성들의 엘리트 의식의 산물이라고 매도하기도 한다. 게다가 '문화제'라니.

'문화'라는 영역이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언어, 예술활동, 행동양식, 관습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권력의 장이며 권력이란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실재를 왜곡시키기도 하는 동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를 이야기할 때 특정계급이 향유하는 고급스런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누어 가질 수 없고 주눅들게 하는 문화 개념의 폭력적 이데올로기를 끈덕지게 부여잡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에 묻어 있는 의미의 이데올로기성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버리고 만다. 이 남성중심적 사회의 공고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촘촘한 망 속에서 어찌면 '좀 배운 엘리트 중산층 여성들'의 배부분 합리화 전략이라는 매도는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매도를 가부장적 사회의 안전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남성들의 유치한 방어 전략이라거나 여성문제에 아무런 고민이나 의식이 없는 이들의 편견이라고 넘겨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각들이 현 대학사회 그리고 이화에서도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이

남성중심적 가치체계로 가득한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배제되고 폄하되어 왔던 여성들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려 한다. 의미체계의 전복과 창조의 장, 그것이 바로 '3회 페미니즘문화제'인 것이다.

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전까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던 경제 및 정치이론과 활동이 일정한 한계성을 보이면서 '문화'라는 영역이 억압과 저항의 새로운 지점으로 대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차적 산물 생산의 동인으로만 치부되었던 '문화'의 공공적이고 정치적인 양상들은 우리의 의식주 못지 않게 실제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문화와 그 체험은 직접적인 정치보다 사회적으로 더 설득력있을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의 결정적 요소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형 속에서 여성운동은 여성억압의 원인으로서는 문화의 영향을 크게 겪으면서 여타의 진보적 운동에 비해 빠르게 '문화'를 새로운 전선으로 채택하였다.

페미니스트 문화론에서 '문화'의 개념은 여성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남성 중심적 가치로 구성된 사회문화적 관념의 총체로서 물질 토대의 변화 이후에도 지속되는 여성의 억압을 상당히 설득력있게 지적해준다. 즉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화라던가 여성의 교육과 고용 확대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여성 억압의 근저로서 존재하는 '문화'로부터 새로운 저항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지난 2회 페미니즘문화제에서는 영화, 연극, 만화, 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시 읽기' 작업을 시도했었다. 즉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예술과 문화로부터 배제된 여성(여성성)들을 첨가하고 발굴하고 재해석하는 저항적 독해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과 가치, 제도에 동등하게 편입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가치 자체에 대한 부정과 해체를 모색하는 힘겹지만 즐거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더 나아가 이 남성중심적 가치체계로 가득한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배제되고 폄하되어 왔던 여성들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려 한다. 의미체계의 전복과 창조의 장, 그것이 바로 '3회 페미니즘문화제'인 것이다.

새내기글

너, 그래서 세상 어떻게 살래?

번개(사외 97)

여자 인생의 뇌관은 결혼이고, 여성의 몸이 상품화 됨에 시비걸 때, 거리에서 담배필 때, 주위로부터 들게 되는 소리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은 여성 스스로가 억압이라고 생각지 않는 작은 것들에서부터 기인한다. 사회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차별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기존의 문화가 남성들 전용의, 여성이 배제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에 이의제기를 하자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느니, 심지어 사회부적응자로 낙인받게 된다. 나도 답답하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태어나 지금까지, '여자니까, 여자여서, 여자가...'라는 단서를 떼쳐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한 여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살아가자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을 사회에서 찾아가기는 힘들었다. 기존 사회문화 속에서 내가 같은 여성들이 억압받고, 비하되는 것을 보고 당연스레 생활한 것은, 그 속에서 나를 타자화시켰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을 가지고 남성의 시선을 가졌던 거다.

이제 여성으로서 나의 시선을 찾아야겠다. 음... 이제는, 남성들의 일방적인 얘기를 강요하지 않길 부탁한다. 이제 난, 나의 얘기를 할 것이다. 여성적인 것은 침잠해 있고, 남성적인 것만으로 고여, 흐르지 않고 썩어 있는 못에 구멍을 뚫기. 페미니즘 문화제는 그런 구멍뚫기의 일환이다.

우리들의 시선갇기. 그냥 그러나보다 하고, 생각해져왔던 것들에 대해 반문하기, 페미니즘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왜, 그렇지?'란 반문을 해 보았다.

문화제를 많은 이화인들과 함께 여자로 태어나 주어지는 삶을 반문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한다. '너, 그래서 세상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아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정권이 내게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화인들과 같이 고민해보고 싶다.

'왜, 그렇지?' / 어떻게 살까?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행복한 집으로 오세요

사랑, 그 속에는 이야기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정신대 이야기

여성주의 영화 소개

행복한 집으로 오세요

가정책임자는 것은 남성이란 잘못된 통념과 달리 가정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여성의 고용 불안은 아버지의 그것 못지 않게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며칠째 계속되는 요통에 찜질방을 찾았다. 예상했던대로 그곳은 삼삼 오오 짝을 이룬 아주머니들로 가득차 있었고, 동행이 없던 나는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던 나는 붓물터지듯 계속 이어지는 아주머니들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자식이야기, 남편이야기, 그 밖의 무수히 많은 집안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아주머니들은 가게, 청소, 요리, 빨래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범대생인 내가 무색해지리만큼- 자식의 교육에 있어서까지 이미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박사들이었다. 하지만, 결혼전 자기일에서 꽤 잘나갔던 것 같은 여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아주머니들의 결론은 이것이었다. "지라고 뭐 별거 있나? 여자가 결혼하면 다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떤 남자도 결혼 후 전업주부를 꿈꾸지 않는다. 만일 그런 남자가 있다면 오히려 웃을거리가 될 뿐이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왜 그런 일이 당연시 되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 여성의 운명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화, 가사노동의 사회화'

성역할이란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기대하는 행동, 태도, 생각 등의 행동기준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라 남성은 이러, 이러한 일을 해야 하고, 여성은 저러, 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가정, 학교, 회사, 그리고 텔레비전, 신문 등

우리가 접하는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중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곳인 가정은, 그것이 1차적으로 사회화되고 자라면서 더욱 강하게 고착되며 또한 다음 세대로 재생산되는 곳이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처음 안긴 곳은 엄마의 품이었다. 그리고 그 품에서 요리를 하고 청소, 빨래를 하는 엄마를 보았고, 아

가사노동은 가정의 요리, 열거지, 청소, 빨래 등의 일상적인 가사노동과 정교화된 가사노동, 그리고 양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살이 과학기술의 발달은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가정기기의 엄청난 발달을 이루어 일상적인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를 불러왔다.

침에는 출근하고 퇴근해서는 신문을 보며 담배나 물을 찾는 아빠를 보며 자랐다. 그래서 동네아이들과 소꿉놀이를 할 때는 마치 누가 더 엄마와 아빠의 흉내를 잘 내는지 내기를 하듯, 여자아이는 열심히 밥을 하고, 아기인형을 돌보았고, 남자아이는 거드름을 피우기도 한다. 그리고 좀 더 자라서는 학교에서 배운 가정을 실습하듯 엄마를 도와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남동생의 그리고 오빠의 밥상을 부지런히 차려야 했다. 그러면서 어느덧 -의식적으로는 거부할지도 모를- '남자=바깥 양반, 여자=집사람'이란 공식은 서서히 우리의 머리속에서 굳어졌다.

아이들은 보통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엄마:집에서 밥하고, 설거지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며, 간식을 준비해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 아빠:밖에서 돈을 벌고, 집에서는 TV를 보고, 신문, 책 등을 읽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념도 많이 변해왔다고 한다. 교육과정 내에 있던 기술과 가정·가사의 분리가 없어지고, 이제 학교에서 남학생은 기술을 배우고 여학생은 가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에게도 교육기회가 많이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고급여성인력이 많이 배출되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났으며 취업 주부의 비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가사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 이제 제법 많은 남편들이 부인의 일을 도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직도 오빠의 밥상을 차려주는 여동생과 남동생의 밥상을 차려주는 누나의 모습은

보이지만 그 반대는 보이지 않는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 속에서는 언제나 앞치마를 두른 엄마의 모습이 있고, 집안일에 서투른 남성들의 어중잡은 몸짓은 여전히 우리를 웃게 만든다. 성공가도를 달리는 아빠의 가정에 대한 무심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엄마의 그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전통적 성역할 개념은 여전히 우리들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성역할 개념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족임금이 테올로기는 여성이 직장에서 차별적 임금을 받고 정리해고의 0순위가 되는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가족임금제는 남성에게 그가 부인과 자식 등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가족임금제는 가정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남성이고 여성의 일은 보조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남성=가족의 경제적 부양자'라는 공식으로, 가장이 될 수 없는 여성은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연히 노동시장 내 입지가 약화되었고 결국 가정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집 안팎에서 가해지는 성별분업의 압력으로 여성은 부당하게 가사노동에만 전념하게 되며, 이는 여성의 일이라는 이유로 가치절하되는 이중의 부당함을 겪는다.

많은 사람들이 주부의 삶이 편해졌다고 한다. 가

어떤 남자도 결혼 후 전업주부를 꿈꾸지 않는다.
만일 그런 남자가 있다면 오이려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제만 여성에게는 왜 그런 일이 당연히 되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 여성의 운명이기 때문에?

사노동은 가정의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등의 일상적인 가사노동과 정교화된 가사노동, 그리고 양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확실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가정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가정기기의 엄청난 발달을 이루어 일상적인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를 불러왔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전체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그것이 개발되기 이전에 비하여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지금의 가사노동이 세탁기, 청소기 등이 등장하기 전에 가정에서 요구되었던 일들만이 아님을 뜻한다. 이제 주부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 뿐 아니라 남편이 직업에서 성공하는데 보조자로서, 가족의 영양을 책임지는 영양사로서, 편안하고 안정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실내 장식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양육은 어떠한가. 공교육의 확대가 아이들에 대한 가정교육의 책임을 덜어 준 것은 물론 아니다. 청소년 비행이 사회문제로 이슈화가 될 때마다 들먹여지는 것은 언제나 가정이다. 그리고 '모성의 상실'이라는 꼬리표가 언제나 함께한다. 거기에 덧붙여 가정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소양과 기술을 가진 훈련된 인간을 키워내야 하는데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 역시 당연히 주부인 것이다. 이렇듯 가사노동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그리고 갈수록 정교화되고 숙련된 노동을 필요로 한다. 가사노동은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고, 사회의 중요한 인력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생산이 아닌 소비의 노동으로 평가되어 낮은 가치를 받는다. 그러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자식을 키우며 가

정 전반을 살피는 등의 가사노동을 위해 행해지는 소비는 새로운 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하기에 가사노동은 소비의 노동이 아니라 재생산노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여자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여성의 본업이며 따라서 여성이 하는 일이라면 높고 먹으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생각은 이를 담당하는 주부를 소비의 기능만을 하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만들어, 남편에 의해 부양되어지는 독립적이지 못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주부는 많은 에너지와 하루의 반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여 가사일을 하면서도 기껏 남편에게 듣는 말은 "죽겠다고 벌어도 주면 편안히 앉아 쓰기만 하면서 집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정도의 편견이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혹은 신세대 부부라는 말이 나오면서 부인을 도와 집안일에 관여하는 남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들이 가사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주부의 취업률은 약 60%이지만, 부부의 가사분담률은 약 30%밖에 안되며 실제 전업주부와 직업여성간에 가사분담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사노동은 모두 여성이 맡고 있으며, 이는 취업여성에게나 전업주부에게나 예외가 없다. 결국은 부인을 '도와준다'라는 표현에서도 읽히듯이 남성에게 있어 가사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부인의 일을 돕는 것'일 뿐이다. ■

상황극을 준비하며

이화여대 중앙동아리 공연극외

가정에서의 여성억압'이라는 주제로 토론극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한 번 여성문제로 토론극을 해 본 경험이 있기에 별 어려움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가부장제의 틀을 깨지않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어지고 강요되어지는 억압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고 여성들 또한 이러한 제도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버린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남편과 같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의 전부는 여성의 몫이라든가 또는 딸이기 때문에 집안 일을 배우고 급게 커서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는 식의 발상...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기도 전에 여자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미리 굴레가 씌워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얘기하고 상황을 설정해서 관객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수록 우리는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여성문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관객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설정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각자 나름대로의 행동대안을 제시해 낼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억압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다.

현실은 압박할수록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날수록 미래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온백된 현실 아에서는 불투명한 미래만이 기다릴 것이다. 관과 배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온백된, 왜곡된 현실을 밝혀낼 것이며 철저이 압박에 들어갈 것이다.

- 장초익 -

사랑, 그 죽이는 이야기

지혜 (이대 여성학과 대학원 졸)

사랑은 묘사되어 있거나 보다 낮게 재창조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식' 되어 있지는 않다. 사랑은 완전히 <경험되어졌고> 그 경험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이해' 된 적은 없다.

Shulamith Firestone

사랑이란?

전달 수 없는 불현 듯 다가온, 우연히 찾아온, 운명적인 예감, 어디선가 만날 것 같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첫눈에 반한 가슴시리도록 슬픈, 단 한 번의,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영원한, 순수한, 황홀한, 매혹적인, 격렬한, 은밀한, 맹목적인, 무조건적인, 불타오르는, 격정적인, 열정, 행복감, 환상, 절정, 고백, 추억, 눈물, 상처, 아픔, 욕망, 희생, 헌신, 절망, 낭만, 연애, 로맨스, 기다림, 설렘, 그리움, 떨림, 교감.

사랑이란?

계약, 공도, 기만, 의무, 역할, 제도, 관습, 규범, 모방, 자본, 의례, 공식, 결혼, 혼수, 다이어트, 정상성, 계급, 집안(가문), 짝짓기, 임신/출산/양육, 가사노동, 매춘, 상품화, 교환, 거래, 불륜, 외도, 간통, 위선, 사기, 구속, 정복, 소유, 지배, 종속, 억압, 착취, 통제, 돈, 자산, 섹스, 성공, 자기포기, 부사, 의존, 배타성, 매제기름 (피학중), 최면, 중독, 강박관념, 강요, 권력관계.

낭만적 사랑과 사회의 저자 제프리 살스비는 사랑이 개인의 감정 내부 깊숙한 곳으로부터 비롯되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관습과 사

회화는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그런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러한 감정들이 얼마나 오래 혹은 강렬하게 경험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해주고 규제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의식의 통제영역 바깥에서 온통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혼제도와 같이 사회경제적인 힘에 의해 가장 관습적인 형태 혹은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길들여지는' 것이 사랑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살스비의 지적은 사랑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과 분석에 있어서 의미있는 질문을 제기한다.

우선 사랑의 영역이 당사자들에게는 개인의 '자유성'과 사생활의 '자유'로서 인식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러한 위장된 자유가 철저히 사회적 힘에 의해 구조화되고 각본화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랑의 자유는 권리로서는 때로는 강박적 의무로서 대단한 위력과 매혹을 발산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랑을 '제도나 사회적 관계속에서 만들어진 '각본'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에게 강요되고 내면화되어 있는 성역할 사회화와 이중규범(good/bad girl)을 통해 여성의 행위가 철저히 관찰되고 검열된다고 할 때, 사랑이 비합리적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규제되고 조절되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임은 더욱 자명해진다.

사랑이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붓물이라면, 왜 그러한 감정은 '이성'에 의해서만 '성인'에 의해서만 '결혼제도' 안에서만 합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고 고결한 것이라면 왜 사랑을 많이 하는 여자는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화냥년', '걸레', '해본 여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가?

사랑이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이라면 왜 그것은 유독 여성만의 '의무'가 되어야 하는가?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섹시 멀티 우먼-여동생, 딸, 어머니, 간호사, 영양사, 창녀, 상담가로서 남성을 보살피고 배려해야하는.....

뿐만 아니라 로맨스소설과 여성잡지, 드라마, 영화, 광고 문구들은 사랑의 공식을 통해 여성들이 소녀시절에서 성숙한 여인이 되기까지 거치는 발전단계들을 주입, 세뇌시키고 그러한 공식과 규범은 몇몇 문화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의 일상을 광범위하게 포위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본화되지 않은 일탈적, 비합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의 영역과 위반의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각본화되어 있는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본화되어 있는 패턴을 따른다는 것은 '정상적인'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승인과 자아 정체감, 때로는 물질적 보상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 여성들에게 사랑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인연'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강박적 명령이며 지켜야 하는 '규범'이고 보유하고 있어야 할 '자산'과도 같은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우연과 운명, 무조건적인 열정과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것은 미디어와 로맨스 문화와 상품시장과 결혼/가족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연애' (사랑)는 필연적인 인생의 단계로 요구되며 여성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향은 여자, 정상적인 여성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있는)여성이며 사랑받는 여자

는 곧 여성다운 (남성에게)매력적인 여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남자가 없는) 여성은 게으르고 매력없고, 능력없는, 성격적으로 문제 있는, 박색의 여성으로 낙인찍힌다. 그리고 '노처녀 히스테리', '저러니 어디 남자가 붙겠어?' '오죽하면 연애 한 번 못해봤을까? 저런 여잘 어떤 남자가 데려가겠나? 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태된 인류로 취급받아야 한다.

단지 옆에 남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가? 사랑하기에는 너무 많은 살들을 몸에서 덜어내야 하고 힘입거들로 엉덩이를 조이고 볼륨업으로 가슴을 올려붙이고 라네즈 NY 립스틱으로 섹시한 입술을 만들어 놓고 미팅, 소개팅, 맞선 시장에 발빠르게 뛰어다녀야 사랑이라는 계산된 '행운'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관리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합법적'이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영역에 위치하는 한, 사랑은 사회적인 분석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개인의 감정의 영역으로 국한되고 만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난제로 봉착되는 지점이며 여성의 종속적 지위와 억압을 '사랑'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연결시키는 주요한 단면일 것이다.

이에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다양한 접근과 방식으로, 사랑의 함정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그들은 사랑이 여성억압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합의하면서 크게 세가지로 비판의 표적을 삼고 있는데 첫번째는 사랑이 남성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부추기고 미화한다는 측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중심주의가 강요하는 여성성을 강화하고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사랑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성애화함으로써 남녀관계를 '평등한' 개인간의 감정적인 관계로 치환시켜버린다는 것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은 사랑의(불완전한 반쪽이 만나 온전한 하나를 이루다/ 음과 양의 합일을 이루다) 합일 논리에 묻혀 중립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체계적으로 강요되는 '이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애만이 정상적이고 유일한 성애라는 가정은 교육, 종교, 문화, 미디

여성에게 사랑은 남성에 의한 '인정'의 필요를 넘어서 새로운 자아실현의 영역이 되었으며, 사회적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랑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이중부담을 조화하고 병행하는 것이 새로운 여성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어, 결혼/가족제도, 법률, 복지 정책을 통해 지지되고 설교되며 사회적 성원들을 이성애자가 되도록 강제한다. 따라서 남성과의 관계맺음은 자연스러운 순리로 인식되며 이성에 이외의 대안적인 성애나 친밀성의 관계방식이 있다는 사실은 은폐된다. 이러한 이성애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특히,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투여하고 집중하게 하고 남성에 대한 성적, 감정적, 경제적 의존을 유지시키는 기제로 비판받게 되었다. 이성애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통해 여성들은 서로 연대하기 보다는 경쟁하고 혐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선구적으로 갈파한 파이어 스톤은 사랑이 여성에게 있어서 '인정'의 욕구라고 진단했다. 여성에게는 사회적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이 허용되지 않고 남성만이 그녀에게 은총을 내릴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여성은 남성에 인정받기 위해, 그들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는 여성들로 하여금 '적당치 않은' 남성과 사랑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주고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을 위해 바람직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바로 그 남성을 사랑한다고 믿도록 해주는 감정과 정서의 조작 방식을 훈련시킨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경제적 직업능력이 있도록 사회화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영역, 즉, 사랑에 대한 기술만을 개발하도록 조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에 주요한 에너지가 '좋은 남자를 낚기' 위해 쓰여지고 일생의 대부분은 그것을 '유지하기'에 쓰여지므로 여성에게 사랑은 일종의 '평생직업'이 된다.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애인'과 '아내'라는 사랑의 형태와 내용이 달라질 뿐 여성에게 있어 (남성에 대한) 사랑은 일상적 윤리인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

가 많은 부분 확장된다 하더라도 여성의 사랑의 욕구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과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욕망과 쾌락, 사생활이 부상하는 가운데 '남성의 사랑'은 예전(남성은 사랑할 수 없고 남성의 사랑은 단지 지배와 소유욕일 뿐이라는)과는 다른 양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은 파이어스톤의 주장위에서 더욱 발전되어야 할 질문들일 것이다.

여성에게 사랑은 남성에 의한 '인정'의 필요를 넘어서 새로운 자아실현의 영역이 되었으며, 사회적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랑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이중부담을 조화하고 병행하는 것이 새로운 여성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순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상태에서 여성의 '성적 적극성'이라는 새로운 성윤리를 조화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여성의 실질적 능력 보다는 성적 능력이 주요한 자원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맥락속에서 사랑은 직업적 영역에서 성취를 이루는 수단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듯 남녀가 불평등한 지위에 있다고 할 때 그들간의 '평등한' 사랑은 가능한 것인가?

티 그레이스 아트킨슨은 '사랑'을 남성지배를 위해 기능하는 하나의 정치적 제도로서 간주한다. 사랑은 억압자와 피억압자간의 일대일적인 짜맞기이며 항상 남의 이해에만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이 억압자(남성)에 대한 적개심을 자기 힘으로 돌리고 그의 권력을 인정함으로써 상호적이고 평등한 사랑의 의미는 오염, 부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랑에 대한 분홍빛 환상과 선전과는 달리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비대칭적인 의존이 있을 뿐 진정한 사랑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사랑과 여성다움, 여성의 성역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평등한' 사랑에 대한 신화의 허구성은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여성성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강한 성격과 지성/적극적 의사표현은 성적 대상물로서의 여성 이미지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여성들은 그들의 지성이 그들의 성적 매력과 조화할 수 없는 것임을 사회화하여 언제나 성적 매력을 위해 지성과 강한 의사표현을 삼가도록 충고된다. 똑똑하지만 남자 앞에서 나서지 않고, 자신감에 넘치지만 남자 기죽이지 않는 여자가 '편안한' 여자라는 사실은 사랑의 기제가 온전한 자아로서의 여성을 왜곡하고 분열시킨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랑하기 위해서 여성은 자신을 통제하고 조작하고 억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성이 근본적으로 성의 대상물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고 육체적으로 매력이 없으면 여성적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그와 동시에 사랑받을 자격도 박탈당한다.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 사랑은 우연히, 불현듯, 영원히 가 아니라 젊고 색시하고 순결할 때만 가능한 것이 된다. '영원성'이라는 사랑의 신화와 '유한한' 여성성은 모순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남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온존하는 한 사랑의 본래 의미는 침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분석은 '평등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널리 유포되어 있는 사랑의 신화를 정면으로 해체한다.

그렇다면 여성은 불평등한 사랑의 일방적 희생자인가? 그러나 사랑의 심리적 기제를 검토하다보면 여성은 사랑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 매저키즘의 기반위에서 새디스트와 매저키스트인 남녀가 서로를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새디즘과 매저키즘은 서로에게 없는 반쪽을 위해 서로에게 상호의존한다. 그러므로 남성은 감정적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여성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싶은 욕구만 있는 사람도 아니며 여성 역시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기만을 원하는 의존적인 존재만도 아니다.

런 켈서의 분석에 따르면, 새디스트인 남성은 자신의 감정과 의존의 욕구를 억압하고, 매저키스트인 여성은 자신의 독립에 대한 욕망을 억압한 채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 조작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도록 부추겨져 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남성은 여성에게 그들의 의존적인 측면을, 여성은 남성에게 그들의 독립적인 열망을 무사함으로써 자신들 안에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느끼면서 상대방의 경험을 대리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인 사회화는 일정한 사회경제적 지위속에서 여성의 감성을 사랑의 중독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기질로 훈련시키고 남성의 관심과 인정을 추구하도록 여성을 사랑의 전문가로 양육한다. 이러한 훈련속에서 낭만적 사랑의 각본은 여성성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강화하는 악순환을 유도하며 여성의 억압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다시 가리워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랑의 현상이 연인의 두 눈과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사회화부터 성역할, 사회경제적 조건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 친밀성의 영역 특히 사랑의 영역은 지속적인 비판과 분석을 요구하는 새로운 전선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동안 사랑은 언어 없는 몸만을 가졌었다. 사랑은 이제 실재하는 '언어'를 가져야 한다. ■

낙서로 본,

사랑 이야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이 시대의 마지막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사이라 서로가 믿고 있죠. 우린 서로가 사랑하고 또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제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인젠가는 끝날 것이 뻔하기에..... 그러나 딱 남자를 만나면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고, 중요한 건 저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뻔한 결과일지라도 그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우린 고 3 깨끗하게 만났고 지금도 깨끗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도 순결이데올로기에 빠진 여자다. 몇 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매년 집요하게 요구해 끝내 2년 반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난 원치 않았으나 거의 강간에 가까운 (사랑만 없었어도 그건 정확한 강간이었다)행위로 나는 내 순결을 잃었다. 그러나 웬일인가? 처녀막이 내겐 없었다. 아니 있었는데 그 이전에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첫 경험에 피가 나오지 않았다. 그 후로 남자친구는 날 매일 의심하고 과거를 대라며 마구 때렸다. 그리고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옛날 얘기를 정말로 옛날 얘기로 만들어 버리고자 했다. 내가 처녀가 아닌 너와 결혼해야 할 이유도 없고 너를 책임질 필요도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도 계속 나를 농락하기 위해 날 버리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널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게 그 애의 생각이다. 차라리 내가 순결이데올로기에 빠져있지 않았다면 이 애를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 첫남자니 이 애를 떠나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고 불결하고 그 다른 남자한테 죄송스럽다. 그러나 그렇다고 진짜 나의 첫남자는 나를 의심하며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누가 책임지는가? 너무나 한심하지 않은가? 나는 내 자신이 신데렐라 Complex 같은 거 전혀 없는 자주적인 여자라고 자부해 왔는데 결국 성이데올로기 앞에서는 맥도 못 추는 추한 의존적 여자일 뿐이다.

-결국 순결이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우습군요. 나도 애인과 가끔 Sex하는 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여긴다. 대체 왜 Sex를 죄악시 여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 Sex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다.

*질에 염증이 생겼다. 그에게 말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치료비 10만원

사랑이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만 내 전부를 주고 Sex를 그와만 즐긴다면 그 건 정말 가장 큰 행복이다. 어떤 이는 Sex를 즐기는 여자는 더럽혀진 x이라고 하지만 그런 욕을 많이 들었지만 그인 내 모든 얘기를 알고도 날 이해해 주었다. 내 전부를 어찌면 주할지도 모를 내 모습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가 너무 사랑스럽다. 난 내게 성욕을 느끼는 모든 남자에게 성욕을 느낀다. 하지만 그가 기둥이 되어 내 성욕은 이제 그에 게로만 향하게 되었다.

*사랑이란 순간적인 것이다. 그렇기에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다. 영원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존재한다고 해도 아름답지 않다. 순간의 사랑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자.

*무서운 이야기가 많다. 난 아직 사랑을 해 본 적도 없는데, 이상한 이야기만 많이 들어 겁난다.

-사랑은 절대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MAGIC이예요

-사랑은 결코 대단한 게 아니다. 사랑에 '빠지는' 정도는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냐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전에 이성간의 교류가 없었던 사람일수록 사랑에 쉽게 빠진다.

*사랑이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모순되는 것이다. 그 아이가 내 앞에 나타난 건 기쁘지만, 소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 대한 슬픔이 나를 감싸고 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 만으로도 행복한거죠. 상대에게 집착하지 말아요. 그를 소유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죠. 우선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십시오.

*남자 친구가 "머리 기르면 안 돼?" "렌즈 끼면 안 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가 원하는 쪽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주체적이지 못한 이화인 같다. 연애 땀에 죽겠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그 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나는 외롭고 쓸쓸하다. 내 자아가 자꾸 꺾여 나가는 것만 같다.

*나이 차가 많은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들 한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함께 싸우고 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사랑을 위해 자신을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자기 최면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똥똥하고 X생겼기 때문. 2년 동안 얻은 건 CD 뿐인 성적표다.

*"남자 친구 하나쯤 있었으면"하는 <필요>에서 파생된 사랑은 하지 않는다.

비현실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필연적>인 사랑을 한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4번의 사랑 (내 자신이 사랑이라고 착각한) 끝에 진정한 또다른 나라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그와 나는 정신은 맞닿아 있고 그의 육체는 나의 육체이다. 우리는 서로 바쁘지만 틈이 나는 대로 기회를 내어 만난다. 우리가 만약 잘못된 인간사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지라도 우리는 서로의 영원한 애인이라고 우리의 인연은 예정되어 있던 것이라고 그의 보통이 넘는 온화한 정신은 언제나 나에게 조용한 안식을 준다. 그는 또다른 나다. 나는 나에게 이런 사람이 주어져 기쁘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와 나는 아직도 어리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서로 헤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

*그와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다.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내 사랑이니까.

*사랑할까. 내 모든 걸 걸어서.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정신대 이야기

정신대문제는 늘 반일, 반제국주의와 연관되어 얘기되어져 왔다. 정신대문제를 떠올릴 때면 언제나 36년 간의 일제 식민통치를 얘기하며 치를 떨고는 다시금 굳건히 '반일'을 결의하곤 하였다. 물론 정신대문제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간에 일어난 일인 만큼 제국주의에 대한 비난과 함께 민족의식을 공고히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성이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잊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대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된다. 하나는 은폐되고 하찮게 여겨지는 '전쟁 성노예'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에 대한 '순결 이데올로기'적 사고이다.

언제나 한국사회가 정신대문제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감히 '순결한 우리 조선처녀'를 끌어다가 '일본놈'이 성폭력을 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순결한 처녀가 아닌 매춘부들을 끌어다가 일본 '군위안부'를 만들었다면 과연 한국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또한 만약 일본인 여자로서만 구성된 일본 '군위안부'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저 일본놈의 야만성에 경악하며 남의 일인양 넘어가지는 않았을까?

또한 종전 직후 할머니들은 따뜻하게 위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숨어지내야만 하였다. 왜냐하면 (너

무도 잘 알고 있듯이) 성폭력을 당한 여자에 대해 한국사회는 언제나 '몸을 버린' 여자라며 차라리 자살할 것을 강요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해 김해에서 택시기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자살을 한 여성에 대해 기사가 했던 다음의 멘트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택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 관념이 회박해진 요즘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대부분의 정신대문제에 대한 분노는 '일본놈의 야만성'에 관한 것이었지, 여성은 언제나 전쟁시마다 '성노예화' 되었으며,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제 2 제 3의 일본 '군위안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늘 간과되었던 것 같다. 정신대문제는 암울했던 역사의 뒷편에 살았던 할머니들의 불행하고 특수한 경험일 뿐이지, 21세기 전문

이제는 정신대문제를 단지 일본에 대한 비난과 분노로만 사고하는 남성적 시각에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전쟁 성노예'의 역사를 쓰는 자랑스런 첫발을 내디디야 하지 않을까?

직 여성의 삶,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정생활을 꿈꾸고 있는 내게 어찌 그런 야만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남성에 의해 쓰여지고 해석되어지는 역사를 해치고 소위 야사 내지는 외전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전쟁 중에 고통을 당해야 했던 여성의 모습이 있어 왔다. 수없이 많은 침입을 받아왔다는 한국의 우월한 전쟁 역사를 뒤져 보면 '화냥년'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몸을 버린'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여자들의 삶이란 원래 그랬다며 고달픈 한숨과 함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뿐 고등학교 국사책 어디를 뒤져 보아도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어느 역사책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전쟁 역사속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모아보자.

-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군과 영국군에는 '이동 사창가'라는 것이 설치되었으며, 오스트리아-헝가리 군도 자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여성을 붙잡아 위안부를 만들었다.

- 아리아인의 순결한 씨를 심는다는 명목으로 나치인들은 수많은 유대인 여성들을 성폭력했으며, 얼마전 보스니아 내전 중에도 '집단 성폭력 캠프'가 발견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 1914년 벨기에를 침공한 독일군은, 모녀를 한자리에서 윤간하고 반항하면 유방을 총검으로 내리쳤다.

- 이태리 남성들은 전쟁이 계속되어 식량이 떨어지면 자신의 아내를 적군에게 팔아먹기도 했다.

- 1937년 일본군이 중국의 남경을 점령했을 때, 윤간은 다반사였으며 아버지에게 딸을 성폭력하게 했

고 성폭력 후에 여자의 음부에 막대기를 꽂아 놓곤 했다.

- 베트남에서 미군은 고원지대를 수색하며 한낮의 권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폭력을 일삼았다.

- 1971년 방글라데시가 독립 선언을 했을 때 파키스탄 군대에 의해 9개월 동안 20여만 명의 여자들이 성폭력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 미군 기지 주변은 합법적인 매매춘과 성폭력의 소굴이 되어 버렸으며, 한때 이 나라 정부는 이곳 여성들을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애국자들'로 칭송하고, 미군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기적인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前일본군 위안부가 있다.

전쟁은 남성권력 간의 힘의 충돌이다. 여기에서 여성은 공통 억압의 대상이 되어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여성은 단지 성욕 해소의 도구여서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것이며, 남성의 소유물이기에 적에 대한 효과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권을 쥐고 있는 남성에 의해 쓰여진 역사에서는 여성의 이와같은 경험들은 단지 하나의 가십거리로 지나지 않았다.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성은 언제나 성노예가 되어야했음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묻혀지고 왜곡되거나, 정신대문제처럼 여성이 빠져버린 민족주의나 순결이데올로기에 의해 해석되어졌을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신대문제를 단지 일본에 대한 비난과 분노로만 사고하는 남성적 시각에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전쟁 성노예'의 역사를 쓰는 자랑스런 첫발을 내디디야 하지 않을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한국정신대연구소 여순주님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이 문제의 진상을 파헤치는 작업도 증언집과 연구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제가 패전하면서 각 지역에 주요문서 파기를 명령하였고 조선총독부에서도 특히 인력동원관련 문서는 파기할 것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서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경찰 관계 등의 주요한 자료가 거의 일본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자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발굴한 자료와 연구 조사를 기반으로 보면,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이 1930년대부터 패전 때까지 침략 전쟁을 벌이는 동안 각지에 세운 '위안소'에서 일본 군인들의 성욕 처리를 위해 이용한 여성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본군 위안소는 현재 기록상 1932년 중국 상해에 해군위안소가 설치된 것이 처음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1938년 중일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설치되면서 동원 규모 역시 커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한 이유는 군인들의 풍기와性病 예방을 위해서였다. 군인들이 점령지에서 약탈, 성폭력 등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러한 군인들의 풍기를 통제하고性病으로 인한 병력 감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된 성적 오락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위안소는 크게 군이 직영하는 경우와 민간인이 경영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인이 경영하더라도性病검사 등 전반적인 것은 군대의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했다. 일본군이 주둔한 곳이면 거의 예외없이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일본 국내에도 있었고 대구와 부산에도 있었다. 위안소로 이용된 건물은 현지인들이 살던 집이나 학교 건물 등이었고 부대 내에 직접 짓기도 했으며 간이천막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동원된 여성들도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점령지의 여성들, 네덜란드인 등 다양했다. 그러나 일본의

조직적인 자료 은폐와 패전 당시 자료 소각으로 동원의 전체 규모는 8만에서 2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을 뿐이다. 군인 29명당 '위안부' 1명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산해 내기는 하지만 정확한 규모를 밝힐 수 없는 상태이다.

그 중에서도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많은 여성이 동원되었는데 거기에는 국가가 없는 식민지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일본은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협약 등 당시 국제조약에 가입하면서 식민지에서는 유보한다는 조건을 걸었던 것이다. 또한 식민지 통치기구인 경찰과 행정 조직을 통한 조직적인 동원이 용이하다는 점과 일제의 수탈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특히 농촌의 경우 딸들이 일찍 돈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 작용한 것이다.

동원 방식은 가짜각색이어서, 관에서 개입하기도 하였고 경찰과 군인들이 폭력을 이용하여 끌고 가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있으니 가자"는 식의 취업 사기 유형이 많았다. 민간인 업자가 여자들을 끌고 가서 부대 근처에서 위안소를 차리기도 하였지만 일선 부대에서 직접 '위안부'를 동원하기도 하였고 조선군사령부에서 일본인 위안소업자들을 모아서 '위안부' 동원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연행이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일을 하게 될 지 모르고 동원됐기 때문에 강제 연행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인이 동원하였다 하더라도 위안소까지 가는 데에는 경찰과 군의 통제와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각지로 '위안부'들을 수송한 때는 일본까지는 연락선이 많이 이용되었지만 일본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지로 이동할 때에는 군용열차나 군화물선, 군함 등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각지의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본군이 만든 '위안소 이용

규칙'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용 규칙에는 일본군대가 위안소를 사용하는 시간과 요금의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위생 대책으로 샷수(콘돔)를 사용할 것 등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군인을 상대하는 시간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했다. 대개 아침부터 초저녁까지는 병(兵)이, 초저녁부터 밤 7~8시까지의 하사관, 야간에는 장교가 숙박할 수 있었다. 여러 부대가 같이 주둔해 있는 경우에는 부대마다 요일을 달리하여 위안소를 이용하였다. 군인 한사람당 시간은 30분이나 1시간 이내로 규정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하루에 상대해야 했던 군인의 수는 10명 내외에서 30명 이상이 되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몇 명을 상대했는지 셀 수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 위안소가 없는 지역에 파견되어 임시 막사에서 한 번에 그 부대의 거의 전인원을 상대해야 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요금 제도도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용 시간과 군위안부의 민족에 따라 달리 책정되었다.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의 경우는 중국인 1원, 조선인 1원50전, 일본인은 2원이었다. 군인들도 요금을 지불했다고 하는 증언이 많고 규정에도 반드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군인들이 지불한 요금이 군위안부 수중에까지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군인에게서 아무 것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군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인에게 내야 했다. 또한 이들이 받았던 군표는 패전 이후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위안소의 주인 혹은 관리자는 군인들에게 받은 돈이나 군표를 장부에 기록하고 수익의 총액과 배분을 담당 장교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性病 검사는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은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의, 위생병 등이 검사를 하였다. 검사 결과 합격된 위안부들만 계속 군인을 받을 수 있었고 불합격한 경우는 회보로 알려거나 위안소 각 방에 천조각이나 껌말을 가지고 표시하였다. 군인들은 샷수를 반드시 써야했으나 쓰지 않은 군인들도 많았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렇듯 군 '위안부'들은 군위안소의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작은 방에서 외출도 엄격히 제한당한 채 정기적으로性病 검사를 받고 매일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이름도 일본식 이름이거나 번호로 불렸으며 우리말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었다. 규정상 여성들에 대한 폭력 행사는 금지되었지만 군인들은 칼로 찌르기도 했고 마음에 안 든다고 구타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병이 심하게 들거나 임신을 하면 위안소에 그냥 없어서 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 수행에서 이들은 임시 간호부 노릇도 해야 했고, 탄환을 나르기도 했으며 전쟁 말기에는 식량 보급이 불가능하여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연합군의 폭격에 맞아죽거나 방공호에 피신하는 등 고생하였다.

패전을 맞이하자, 일본군은 이들을 자신들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동굴에 넣어 집단학살하거나 귀국선에 태운 후 어뢰에 부딪치게 만들어 침몰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혹은 해방을 알리지도 않고 그냥 버려둔 채 자기들끼리만 철수하였으며, '위안부'였다는 것을 숨기려고 병원에서 간호 보조원으로 위장시키고 강제로 혈액을 뽑기도 했다. 때문에 이들 여성들은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혔다가 귀국하거나 중국의 경우에서처럼 귀국하는 다른 동포들과 함께 걸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수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고국에 돌아올 수가 없어 자살하기도 하였고, 그 곳에 그냥 잔류하기도 하였다. 최초로 위안부였음이 알려진 오키나와의 배봉기 할머니와 얼마전 캄보디아에서 살아오신 것으로 확인된 훈 할머니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또한 중국 무한 지역의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이다. 이국에 남은 피해자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 나라 남성과 결혼해서 어렵게 살아야 했다. 태국의 노수복 할머니는 그곳 남성과 결혼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자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아이를 낳도록 하였다. 배봉기 할머니의 경우는 평생 대인기피증에 걸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 아직 해외에서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잔류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작업이 시급하다.

WELCOME

작품 해설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누구나 겪어 봤을만한 사건들이 있다. 이미 안에 있는 남자의 뒷모습에 놀라 되돌아 나오는 여자. 그것에 오히려 당당해져 여유를 느끼는 남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거리낌 없는 행동에 오히려 숨죽여 없는 채 하는 여자. 떼거지로 몰려온 여자들에 위축되 허겁지겁 나가는 남자. 그리고 여자들이 가득찬 화장실 문을 잘못(?) 연 남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를 생각해 본다.

연출의도

무심코 남녀 공용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당황했던 경험에 있다. 그런 경험의 반복 속에서 어느새 조심스럽고 소극적이 되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남성'에 대한 나의 공포감은 이렇게 추가된다. 문짝 몇 개가 왜 사람에게 이렇게 억압감을 주는지... 참으로 이상한 구조다. '여성성'이라는 규정과 제한들도 이렇듯 사소하지만 집요하게 쌓여간다. 그러나,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구조의 불합리성은 모두에게 인식되며,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 친구들에 의해 나아지고 있으니까... 치열한 고민 속에 만들어진 나의 세계에서 불합리성들을 두려움없이 반갑게 맞이하고 싶다.

스텝 / 캐스트

제작 장순한 / 각본, 편집, 연출 장희선 / 촬영 김용국 / 조명 김용근 / 동시녹음 김진상 / 악성 박찬욱, 장희선
출연 서신예, 강성구, 장지옥, 맹보름, 원위영, 최은란, 이팔언

스텝

각본, 편집, 연출 박찬욱 / 촬영 김용근 / 조명 정운철 / 녹음 김진상

여성주의 영화 1710

16mm / 컬러 / 4분 / 과잉 / 과잉

작품 해설

사람들이 가득한 지하철에서 희정은 자신의 속옷이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발견하고 옷차림을 추스린다. 성적으로 위축된 희정은 맞은 편에서 있는 능글맞게 생긴 남자를 경계하며 그의 손을 살핀다. 남자는 아무 짓도 안하고 있다. 무심히 몸을 움직이다가 희정은 옆에 서있던 안전하게 생긴 학생이 지금까지 자신을 만지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희정은 몹시 불쾌하다. 달리던 지하철이 덜컹한다. 그 바람에 희정의 손이 앞에 서 있던 여자의 엉덩이를 건드리게 된다. 희정은 자기도 한번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조심스럽게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희정. 여자는 이를 모르는지 가만히 있다. 희정, 계속 만져본다. 지하철이 서고 여자가 내리려고 한다. 희정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다. 그녀의 뒤를 쫓아가지만 사람들 때문에 끝내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여자의 뒷모습을 뒤로 한 채 지하철은 떠난다.

연출의도

이 영화에는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는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한 여자가 나온다. 나는 관객들이 그녀의 그러한 충동적이고 왜곡된 행동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성에 대한 피해의식을 읽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 피해의식은 한 개인의 특수한 성향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성적인 억압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요즘은 기존의 성의 질서와 부딪히며 새로운 성의 구도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때로는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경도되거나 자기모순에 빠지거나 신경증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지지한다. 왜냐면 그것이 변화를 위한 출발이자 과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하철의 그녀를 사랑한다.

여성위원회가 어떤 공간이냐고요?

여성위원회는 접근하면 안 되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당신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면 이 곳으로 오면 안 됩니다.

예쁘고 고운, 나름대로 완벽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싶다면

절대로 약대 뒤 가건물 여성위원회 방으로 오면 안 됩니다.

물론 360-3562라는 전화번호도 잊어버려야겠지요.

일 년간 여성위원회에서 지내 본 저로서는

이 곳이 일탈과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음모로 가득찬

미친 년들의 공간이라는 것 외에 말씀드릴 것이 없군요.

여성위원회에 오고 싶다고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열심이 공부하다가 이 집행서 무엇하나.

어차피 여자는 취직도 안 되는데, 취직되도 금방 팔려버리는데, 짜증이 나면

지하철에서 기분나쁜 남자의 몸을 느끼고, 어지러신들은 무엇하나 이런놈 안 잡아먹고, 약은 확각 치밀면

결혼한 언니나 엄마의 두뇌를 둔다. 정말 여자는 결혼하면 인생 어두워지는구나. 생각이 들면

남들 말처럼 예쁘게 살고 싶으면 그게 원치 않은 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면

여자로 태어나서 정말 잘 됐어. 그게 못어보고 싶다면

어썸뽕어요. 온저만 불만 퍼뜨리는 것도 지겹다 느껴진다면.

어썸뽕어요. 여기 와서 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이 맘에 안드는 세상 어떻게 업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자인게 좀더 신나볼까. 같이 궁리에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면

어쩔 수 없죠, 당신도 여기 와서

가부장제 사회에 적응안하는 일탈녀, 즐거운 미친년이 되어야죠.

이곳에는 <여성주의>라는 마약이 쌓여 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무서운 것이죠.

여자여서 괴로운 세상이 싫다면 이리 와서 그 마약 마시고 함께 지랄떨어 봅시다!!

아, 여기가 어디냐고요? 이야기 했잖아요. 약대 뒤 가건물 1층이라고요.

연락처는 360-3562.

위험한 번오니 어서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나의 행은, 축복이라고 믿는다. 말뿐이 아닌, 살아있는 스스로를 느끼는 순간순간 온몸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여성성이 자랑스럽고 스스로의 여성성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사회의 현재에서 그것은 설득력있는 오기보통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의심이 든다. 더구나 나는 창작한다. 실제 창작으로서의 문화로 우리 삶 자체의 원주를 놓고 본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결정해 주는' 권력으로서의 상으로 그 의미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문화가 사회의 생산물이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권력에 충실한 한, 사회 주류 '문화' 나름대로의 발전은 서투르다. 두 상의 권력적·상충작용을 일으켜 같이 성장(성장)할 뿐일 못하라는 역감에 대항해, 누가 봐도 가치있지 않아서 가꾸어 나가려는 스스로의 '문화'가 자신의 삶 자체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뿌박히고 탄압받게 될지를 걱정한다는 노미트레와 같은 불안은, 결국 사회가 규정한 상문화의 틀 안에서 수단적인 그 무엇으로 전락한 자신을 깨닫게 되거나 당혹치 하는 것만을, 아니, 애초에 그 자신의 '문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것만지? 현상을 진단하고 그

춤꾼들... 가관

이화 여성주의 문화상

여성들이 만드는 세상

지금껏 이야기되어지지 않은 여성의 체험을 여성 자신의 시각과 여성 자신의 손으로 하나 하나 형상화시켜 표출해 보고자 함이 이 문화상(文化像) 공모의 취지이다.

여성의 시각이 남성의 그것과 다름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실존하는 여성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늘 남성의 틀 안에서 제한되어 왔다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 회의를 품게 하고 그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를 촉구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올해의 첫 문화상 공모에 출품한 이화인들께 크게 감사한다. 이화라는 여성공간의 가능성을, 그리고 여성의 시각으로 새로이 창출되는 문화의 힘을 믿어줌에 확신 그 자체였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성으로서의 이화인이 직접 만들어가는 3회 페미니즘 문화제. 우리가 속하고 즐기고 창조하는 문화를 진정 우리 자신의 것으로 자리매김하고픈 우리의 한 걸음을,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와 공존할 현실 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바꾸는 한 걸음을 우리 힘으로 내밀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의 여성성은 충분히 아름답도록 강하다.

1997년 7월 결성

주빌리, 살, 언더그라운드, 브릿지, (부산)몽크 등 수차례 공연
이대 페미니즘 문화제, 아이스 자이브, 라브리스(여성전용카페)
등에서 공연 예정. 대학 페미니즘 문화제, 축제 등 참여 계획.

기존 제도권 무용은 무용의 대중화를 실현시키려 노력하나 결국
에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춤이 아닌 무용인들 사이에서 위상만
을 높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가족잔치에 그치고 마는 현 무용계
에 대해, 이러한 틀을 깨고자 모인 단체가 바로 '가관'이다.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언더라는 장소를 찾았
다. 이곳은 무대와 관객사이의 벽을 깨고, 무대위의 스타가 되고
자 하는 것이 아니며, 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거부감 없
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가관의 목적이
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카페나 축제와 같은 마당을 지향
한다.

우리의 작품의도가 어떠한간에 보는 사람들은 작품을 이해하
려 할 필요없이 보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시길.....

어쩌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여성은 대단한 창조력을 지니고, 내가 창작 자유를 구상할 수 있을 것만지가 사실스럽다는 것이다. 나의 논리 행동양식은 이미 이 땅의 주류 -한국
적인 특수성을 가진 남성중심적 상문화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확실히 감동시켜 있지 아니한가 말이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내가 진정 무엇
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순수한 나의 눈을 유지하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기억할 수 없다. 이 큰 문제는, 이러한 나의 지식을 표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여성의 대표작인 '소수자'답게 행동하는 현실이다. 그리하여 생산해낸 세 문화양식들, 또한 현실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지라 문제 역시 다른
지점이다. 내가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던 말과 글, 그림 예술, 기타 모든 수단은 과연 진정한 나의 '언어'였는지. 그러므로 나는 기억한다. 내가 성 있는 지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진단하고, 통합시킨 현상계의 구급법을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나아가 여성으로서 나의 세 문화양식을 창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내가 창조한 개인적 문화를 발표하고 자유로이 펼쳐낼 수 있는 시공간을,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땅 이화는 어떠한가

노허즈 밴드

'노허즈밴드'는 1997년 1월 초에 태어났다.
의기투합한 다섯 명의 여성은 단지 음악을 사랑한다고 한다.

1. No her's band

"규정된 '그녀'는 없다"는 뜻으로, 사회전반이 강요하는 획일적인 여성상을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2. No hersband

여성들이 결혼하여 남성 배우자를 맞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잃는 경우가 많다. '엄마', '댁' 등의 호칭 속에 집식당하는 여성의 이름과 자아, 그 현실을 거부한다.

바로 그 여성들:

guitar, vocal: 가빈 (인문학부 97)

bass, vocal: 다이 (약학과 94)

keyboard: 동아 (교육공학과 96)

drum: 아사 (의류직물학과 95)

guitar: 칼리 (전자공학과 96)

밀남인영

곡: 지우림 노랫말: 노허즈밴드

여성주의 독립영화

<지하철>, <딸>, <백요정>, <공익광고 패러디>

조이어울(컴공94)

영화를 좋아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 출중한 능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관점과 느낌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만 왜 그들은 스스로 영화를 만들지 않는 것일까. 그리하여 그들은 왜 영화에 대해 뉘름도 모르는 나로 하여금 감독이랍시고 여성주의 독립영화를 만들게끔 한 것인가.

똑똑한 사람은 이러한 시대에 여성주의 독립영화를 만들지 않는다. 오직 멍청하고 이 사회가 낯설게 느껴지는 철없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 여성주의 독립영화를 만들 것이다.

<지하철>, <딸>, <백요정>, <공익광고 패러디>... 땅을 내려보아도 부끄럽기만 한 이 영화들을 내놓으면서 나는 영화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영화에 대해서보다 사람에게 대해 더 많이 배웠음을 고백한다.

촬영과 편집을 맡아 준 이연과 빛창,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들, 나 우누리 여성모임 미즈사람들, 이화 여성위원회 후배들, 탁대악 여성운동단위 친구들을 비롯한 스무명의 배우들, 그리고 엄마... 꽃보다 아름다운 나의 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다시는 영화를 만들지 않겠노라는 나의 결심이 이 사람들로 인하여 언제고 무너질 위험이 있음을 마지막으로 밝히고 싶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지배한다

내가 미인대회를 갈구는 이유

이운진(필자95)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man or human)들이 살고 있다. 하나는 남성(man)이라 불리는 인간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그렇게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편의상 여성(woman)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 이름은 그들이 붙여 준 다른 무수한 이름들중 하나인 것이다.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는 남성들에게 발견되어 명명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처 발견되지 않아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것 두 가지로 말이다. 명명의 작업 이후에는 지배의 행위가 따른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하여 이름을 붙인 모든 것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눈에 띈 모든 땅은 경작되었고 나무들은 베어졌으며 동물들은 그들의 필요에 맞춰 사육되었다. 그들이

먹기에 편한 동물은 살찌워 졌으며 그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동물들은 길들여졌다. 낡은 알들을 모두 그들에게 빼앗기고 오로지 한 평생의 목적이 두통한 털가죽을 생산해내는 것이 전부인 동물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광물들도 하나하나 움직여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모두 제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존재하던 광물들에게도 용도가 밝혀지면서 이름이 붙고 편파적으로 이용되게 된 것이다. 다른 광물보다 견고한 특성을 지닌 어떤 것들은 무참히 파헤쳐졌지만 함께 속살을 드러내게 된 대지의 다른 것들에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발견품을 늘려가고 대지위의 모든 것에 대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물에 대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을 쌓아가면서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변형에 관심을 쏟게

여성의 역할은 단지 인형의 집을 세우고 있는 기능뿐이며, 이러한 여성의 장식적 기능은 매스미디어와 결합되면서 빠르고 손쉬운 유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되었다. 피스타치오 맛이 나는 닭을 만들기 위해 닭에게 피스타치오만 먹였던 초기의 유치한 단계에서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 올라가는 동안 그들은 그 작업이 그들에게 아주 유용한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유물들에게 근대적인 개념의 전문적인 역할이 수행되었다. 어떤 닭들은 평생을 몸도 못 가늘 정도의 공간만을 누리며 그들에게 주어진 기대치 만큼 개수의 알을 낳으며 살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더 많은 알을 낳기 위한 그들 신체의 강제와 내부 기관에 대한 인위적 진화였다. 토끼들이 힘차게 뛰어다니던 야산과 들판은 더 많은 곡식을 뽑아내기 위한 비료로 덮여 호흡이 곤란할 지경에 이르거나 그들의 생활에 여유를 주기 위한 건물 신축 부지로, 유원지로 변해가는 것이다. 회람어의 Kals는 영어의 beauty와 good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아름다움과 선행의 기준이 얼마간의 보편타당성에 기인한 주관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눈에 아름다운 것은 결국 그들에게 좋은 것이 된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그 보편 타당도 철저하게 편파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하지만 모든 것에 적용되는 Kals가 다른 기준을 따라간다. 닭의 Kals는 많은 생산이지만 그것은 말에겐 그다지 좋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말에겐 빠른 달리기가 Kals가 된다. 이것은 고기와 털을 목적으로 하는 토끼에겐 있어선 안될 기능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말 중에서도 동물원 전시를 위한 말들은 틀리다. 그들에게 발목을 절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빠른 질주와 점프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돼지 사육사라면 동등한 돼지를 위해 애를 쓸 것이며 가장 동등한 돼지가 그의 눈에 가장 이상적인 Kals를 지닌 돼지가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선 이상 식육의 돼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그들의 다른 종류

의 소유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그들이 개, 돼지에게, 석탄과 황금같은 광물에, 산 속의 토끼나 먹고 갈만한 계곡이나 수달이 살기엔 더할 나위없이 좋은 강과 습지에 대해 행하던 몸체의 변형과 이용은 같은 논리로 여성에게도 행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Kals는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오직 인간(man)의 재생산을 위해 몸바치는 것을 최대의 Kals로 갖고 있는 여성들은 아주 특별히 만치 두통한 엉덩이와 가슴, 허리를 지녀야만 했다. 그녀들을 고르는 그들의 눈은 빈약한 엉덩이를 용서할 수 없었다. 또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정숙과 순종이 최대의 Kals로 주어졌다. 순종의 표시로 그녀들은 자신들의 움직임을 아낌없이 절단하며 발가락이 휘어지는 고통들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 의해 부여된 여성의로, 바로 우리가 美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조건을 지닌 몇몇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있는 항목이 된다. 돼지의 Kals는 뒤통뒤통한 외모이지만 그 돼지는 '좋은' 돼지이지 '아름다운' 돼지가 될 수 없다. 단지 인간, 그중에서도 여성들에게만 허용되는 형용사인 것이다. 이렇듯 아름답다는 평가가 여성에 대해 불공평한 이유는 그것이 주어진 시선이라는데 있다. 예로부터 아름다움의 기준을 잡는 것은 여성 외부의 시선이었다. 남성들은 그들의 편의에 맞는 여성의 상을 만들고 그것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잡아 여성들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주관적인 기준이 인정되었다. 예를 들자면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최고 미덕이라고 여겨지던 곳과 여성의 육체노동이 중시되던 곳, 술자리의 흥을 돋굴 여성이 필요한 곳, 동등의 요구에 맞는 여성의 다양한 이상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미스코리아 대회를 포함한 미인대회가

우리에게 완기시켜주는 또 다른 사실은 여성은 미모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곳에 모인 여성들은 모두 공통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다.

산업사회가 발달하여 여성이 더 이상 입노동에 나서지 않아도 좋은 시기가 오면서 차츰 여성의 장식적인 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여성의 역할은 단지 인형의 집을 채우고 있는 기능뿐이며, 이러한 여성의 장식적 기능은 매스미디어와 결합되면서 빠르고 손쉬운 유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물론 이 시대의 노동계급 여성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대화하여 잘 포장된 자본주의 상품논리로 재구성해 낸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미스코리아’란 이름으로 익숙한 미인대회이다.

‘미스코리아’라는 이름과 그에 따르는 찬사는 위험하다. 그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이라는 것이 위험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은 미혼이어야 한다는 것이 위험하다(기혼의 여성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이다. ‘자랑스런 어머니’와 ‘효부상’이 그것이다. 결혼을 한 그 순간부터 여자는 여자임을 잃고 어머니와 며느리로 들어앉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찬사이다. 미스코리아의 시상등급은 ‘眞·善·美’이다. 美를 심사하는 미인대회에서 세 번째 등급으로 ‘眞’을 상정한다는 것은 그녀들이 받고 있는 심사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들의 마음까지 채점되는 것이다. ‘眞’으로 뽑힌 여성은 한국 최고의 여성이 된다. 그들의 의도대로 한다면 한국 최고의 여성은 먼저 진실되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이다. 여성이 다른 방면으로 칭송을 받는 것에 대해 일침감치 봉쇄를 해 버린 것이다. ‘아름답고 착한’ 여성에 대한 동화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이다. 채점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녀들은 선발된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년동안 정해진 일정대로의 봉사활동을 하며 세계 최고의 미인

이 되기 위한 그것으로 국위선양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이러한 그녀들의 일상은 바로 그들이 바라는 그것이 되어버린다. 그들이 관리하는 육체로 드러내 보이는 미가 대중에 대해 전체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유포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스코리아 대회를 포함한 미인대회가 우리에게 완기시켜주는 또 다른 사실은 여성은 미모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곳에 모인 여성들은 모두 공통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마치 토익 몇점 이상자만 지원할 수 있는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었다는 식으로 주어진 미인대회 심사기준을 그녀들이 통과했다는 의미 외에도 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준의 모습이 그럴뿐만 아니라 기준의 형성이 그렇다는 얘기이다. 단상위에 있는 여성들은 한순간에 그녀들의 육체를 공인받은 것으로 만들어 낸다. TV 속의 공간과 현실세계와의 거리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그 장 밖을 넘어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집에서 TV를 보고 제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과연 누가 XX년, 한국 최고의 미인이 될지 채점해 보십시오.” 의도를 숨기지 않는 TV는 그것을 힘들이지 않고 자기 외부로 퍼뜨린다. “신장 160cm 이상, 몸무게 45kg 이하의 용모 단정한 미혼여성”은 이미 여성 선별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되어버렸다. 여성을 외모로 가늠하고 성적을 매기는 행위는 유희의 차원을 넘어 브라운관 바깥쪽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시각매체는 날마다 인식되어온 자신의 외모와 이상화된 인체 이미지를 비교하여 양쪽의 영상을 선명하게 각인시킨다. 카메라의 검열을 통과한 육체가 ‘자연스러운’ 육체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현실의 보도위에는 매체를 통한 이미지의 복사들이 겹쳐다닐 뿐이다. 그들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함으로써

그녀들이 자신들의 몸 전체를 ‘디스플레이’하려 애쓸 때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글이 모든 아름다움을 매도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써 손쉽게 정신을 얻어낼 수 있다. 육체에 대한 심사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행위에 둔감해진다면 그 다음의 일은 정신의 가사상태를 찾는 것 뿐이다.

또한, 미인대회에 참가하는 여자들은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녀들이 입을 열 수 있는 기회는 진행순서에 따른 남자 사회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요청받은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일 뿐이다. 기준안에는 그녀들의 언어와 언어로 나타나는 사상까지도 재단하기 때문에 그녀들의 입에선 박제된 언어만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모습까지도 박제되어 있다. 천편일률적인 외상과 머리모양은 그녀들의 개성을 말끔히 지워지고 그녀들이 서있는 자리가 심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도살장에 끌려온 소에게 개성은 아무 소용없다. 도축꾼이 그들을 보는 눈은 단지 이상적인 살코기의 활용에 맞춰져 있다. 그녀들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바라는 이상에 들어맞는 몸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성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자다운’,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미인이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보자. 남자의 눈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몸에 맞추어 내는 것이 여성의 공식적인 사회화 과정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여성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루고 있다. 기준에서 자유롭다고 자신하는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남성들은 여성을 원한적이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잡아온 사냥감을 박제로 만들어 전시하고 그것을 과시하듯 즐기는 모양으로 그들에 의해 길들여진 어떤것을 감상하고 그 무기력을 비웃을 수 있는 인형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들에게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여성들의 육체

가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한에서 그것은 여성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뇌에 찬 밤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현실속에서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의 기회로 다가온다. 여성의 육체는 기호화되어 의미를 내보낸다. 그리고 그 기호를 만들어내고 양산시키는 것은 남성의 눈에 달려있다. 자칭 ‘페미니스트’임을 내세우는 이승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카메라와 나 사이에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볼 때 나는 그것이 나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미인대회에 나간 이들도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온전히 내 소유인 나의 육체를 가지고 성공의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다.’ 그러나 그 육체에 대한 변형을 주도해가는 것은 전문가의 눈과 손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때 그녀들의 육체에 주체성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여자는 어디에 있는 남자의 눈길을 기준으로 자신의 모습을 적시해야 한다. 그를 위해 그녀들의 몸을 단순한 ‘생산의 공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사회적 제도의 틀안에서 관리되고 변형되는 그 안에서 그들은 그녀의 미모와 그녀를 보는 이들의 욕구를 만들어내고 매체를 통해 그것을 손쉽게 유통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미인대회 후원사들의 이름만이 그 선전의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녀들이 자신들의 몸 전체를 ‘디스플레이’하려 애쓸 때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글이 모든 아름다움을 매도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

성폭력 예방 캠페인

성폭력을 당한 후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핑계로 고백 받을 수밖에
그리고 금상 전복인과 만났을 때 말라갔다



선박인과 우리가 말한다
“성폭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폭력과 무슨 관계가 있나 싶었지만, 고백도 대답한다
“네”
우리가 물었다는 우리가 들었다

1

우리는 성폭력과 불평등에 대한 극복 방법의 하나로 성폭력 학칙 제정을 말하고자 합니다. 대학은 이 사회의 남성중심적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한 단위의 사회로서 수많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대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너도 모르지...”
여대 난 또 남자를 당하는 느낌이었다
난 꼭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생각했어
물론 남자로 친구들을 만났었다
우리가 말한다



여대생 친구들이 알고 나면 행위를 두려워하고
경감하게 된다

2

“저도... 성폭력을 당한 적이요”



당도해서 다른 것들처럼 두근거림이 들어왔다

“아! 모르지...?”

무관심한 어조로 나에게 말한 것들이 들었다

“그 건지 상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제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차근 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3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대생이요? 대학이란? 아니... 여대가 그 사회에
있고... 만들어지는 거요?”

여자는 사회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일관해서 모든 것은 여자는 틀리죠?)

“그럼...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지만... 정말로 나에게 대답했다

“여대생은 정말로 다릅니다”

은...! 하지만 정말로?

“아! 여자도 정말로 그런 거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물어봐 주면... 아니요... 아니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4

고대생 집단 난동사건이 대표적이죠.)

언제나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해결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선전을 하기에 바쁘고, 학교 본부는 밖으로 알려 나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마하려고 하는 등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결은 현실적인 여러 한계들로 지지부진하거나 법체계에 의존하여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성까지 띠게 되었습니다. 대학내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그리고 여성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된 대책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교수님은 내담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한참, 물었다...)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해... 아니요... 아니요...

“자료를 보면... 정말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료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료를 찾아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궁금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도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도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도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도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도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도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도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도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도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도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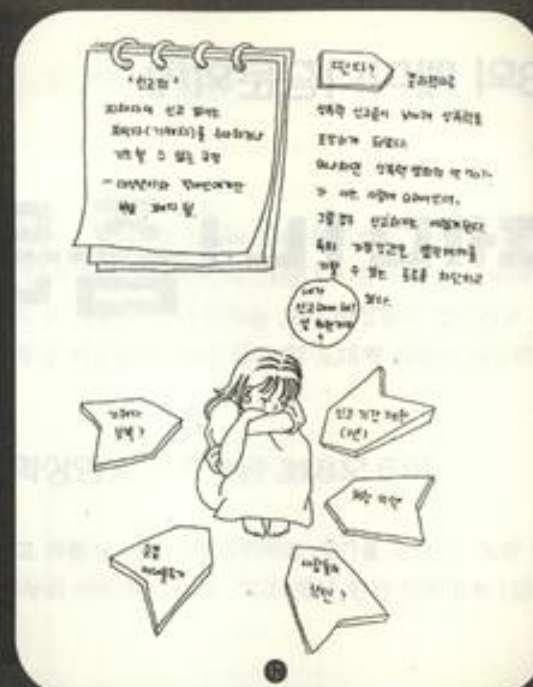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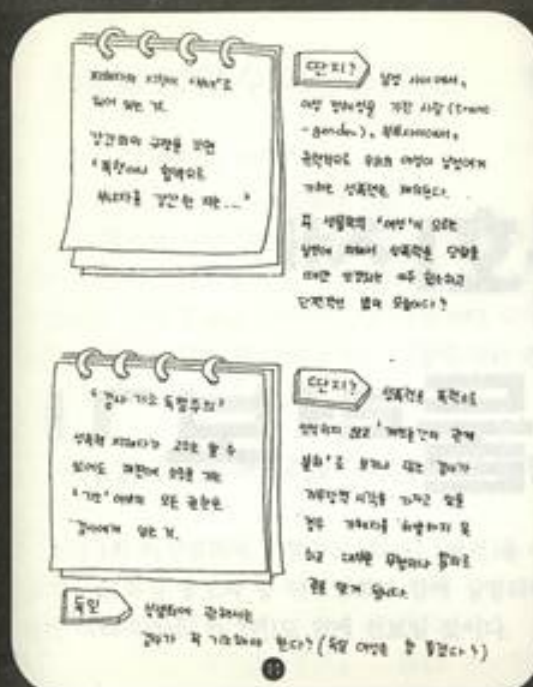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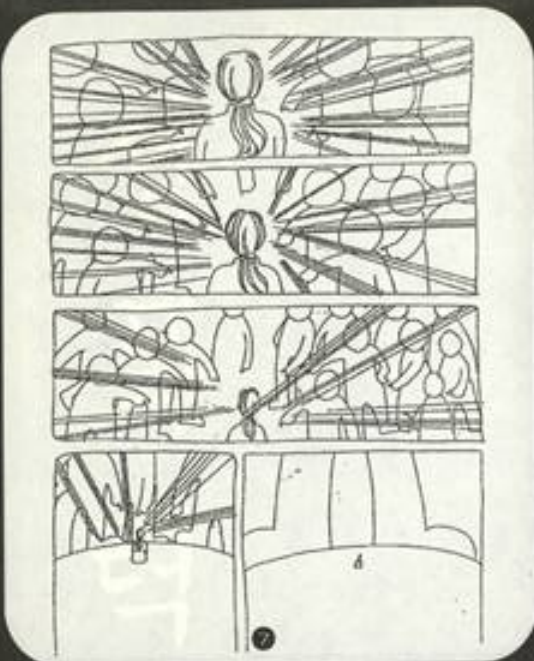
안도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도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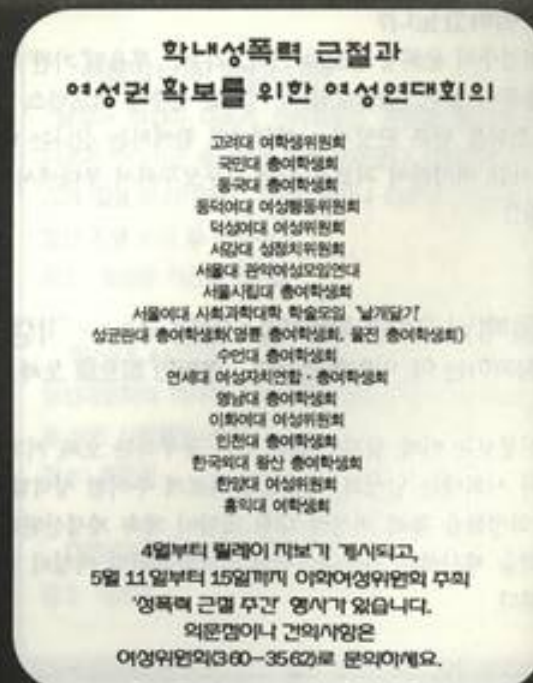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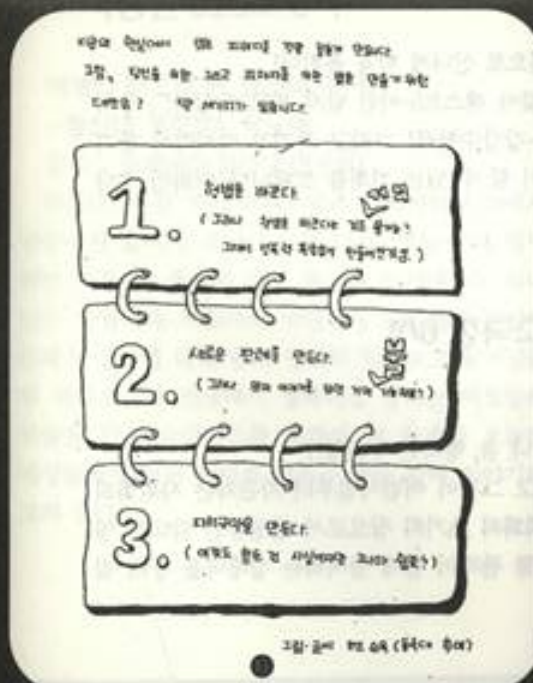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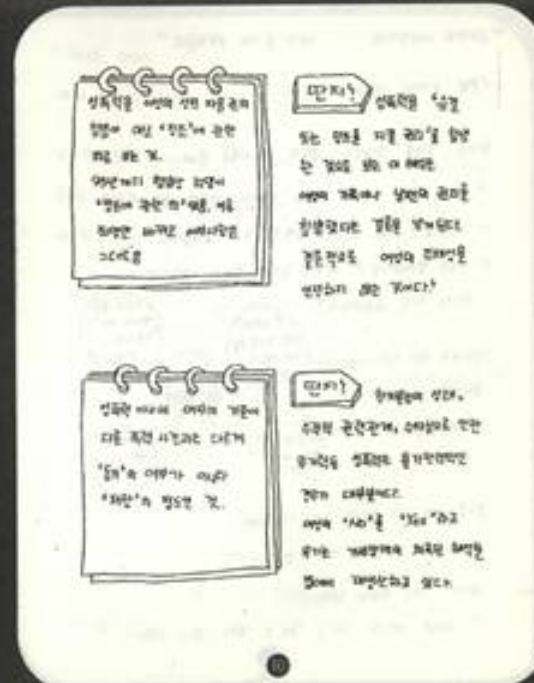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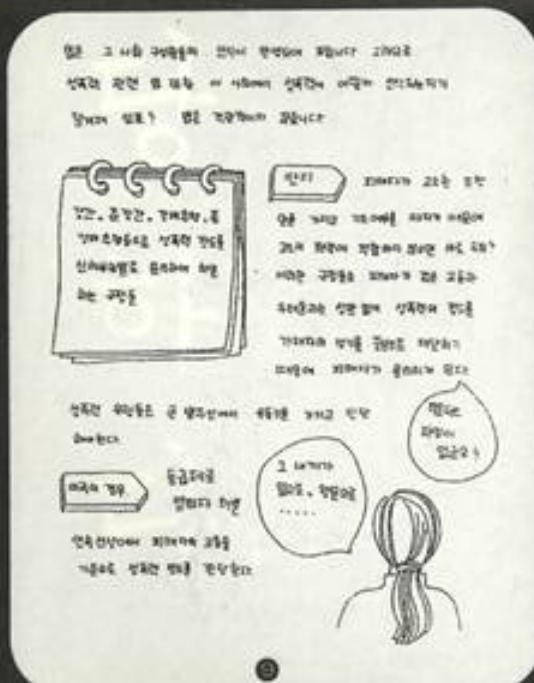


6



이러한 고민속,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성폭력 학칙 제정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학칙은 자치규약이라는 점에서 그 내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기는 하지만 진보적 공간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 이 <대학사회의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학칙(가)>이 제정된다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으로 이 사회의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남성중심적이고, 피해자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자인 여성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성폭력 담론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학칙은 단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단 대학내 뿐만 아닌 전 사회적으로 성폭

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그 근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칙 제정 운동이 단순히 법제정의 의미가 아닌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폭력 학칙은, 성폭력을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여성적 관점을 제기하고 사회의식 전환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여성이 인간으로서 존중 받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러한 '예비 피해자'인 동시에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시 피해자'임을 자각하는 이화인 여러분의 지지를 바랍니다.



3회 페미니즘문화제

페미니즘문화제 둘러보기

첫날 23일 월요일 <개막제> - 이화광장 5시

세상은 우리가 박제된 인형처럼 다소곳이 앉아 아무말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이다!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싶다! 이제껏 우리를 얹어왔던 모든 것을 비웃으며 세번째의 페미니즘 문화제가 시작됨을 즐겁게 선포하는 자리이다.

★뭐하고 노나?

여성주의 문화상 옹호자-언더그라운드 무용팀 '가관'의 공연으로 신나게 박을 올린다!
출동이 공연 <돌꽃모임>의 지하철 성추행 퍼포먼스, '맞아맞아 베스트5-이런 남자 찌르고 싶다!', 우리
의 소원을 담은 끈잇기~, 액땀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대동판-강강수월래! 그리고 자기가 여자라서 즐거
운 사람, 여자라서 괴로운 사람 모두모두와서 무대에서 한풀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이화인 수다
마당!)

둘째날 24일 화요일 <상황극> - 가정관 소극장 6시

함께하는 이: 이화총연극회, '행복한 집으로 오세요~!'

신문보는 아빠, 설것이 하는 엄마, 공부하는 오빠, 커피타는 나. 음, 행복한 우리집??

이 사회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주어진 성역할이 있고 그것이 어린시절부터 차근차근 사회화되
는 과정들을 통해 여성에 대한 억압이 계속 재생산된다. 사회화의 초기의 장으로서 일생동안 막대한 영
향력을 행사하는 가족내에서의 성역할분리와 여성의 사회화를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상황극을 통해 짚
어본다.

셋째날 25일 수요일 <강연1> - 가정관 319호 6시

'사랑, 그 죽이는 이야기'

강사: 김지혜(98 이대여성학과 졸업)

이 사회에서 사랑이란 미혼의 젊은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애과정
에서 각본이라 불려도 좋을, 억압적으로 구성된 남녀의 고정적 역할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들을 그런 것들을 가려버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과도한 사랑에 대한 집착은 오직 여성들의 것이라고 사
회는 규정하고 있다. 왜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존재는 항상 여성들이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네째날 26일 목요일 <여성주의 단편영화상영> - 가정관 318호 6시

작년 1회 여성영화제 수상작인 [있다], [웰컴]을 상영하고 작품의 감독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여
성주의 문화상 옹호작 중 단편영화가 함께 상영되며 나우누리 여성학 소모임 '미즈'에서 만든 단편영화 [담배
남편 허리직였네] 外 2편)도 함께 선보일 것이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다섯째날 27일 금요일
- 가정관 319호 6시

여성의 눈으로 본 정신대 이야기

-정신대, 위안부, 성노예

강사: 조희혜(정신대 연구회)

정신대? 사실 정신대라는 말은 가해자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우리가 이를 다시 '성노예'라 명명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가진 본질을 드러내주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알아왔던 정신대
문제의 진상에 대해 좀더 명확히 알아보고 할머니들
의 현재모습과 전쟁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 문제가 오늘의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함께 이야기하
고자 한다.

페미니즘 문화제기간동안 계속됩니다.
-상설 전시 및 거리전

'아름답니까? 딸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사회화되는 과정을 남녀에게
다르게 주어지는 물건들을 통해 보여준다. 여러분은 두
개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장소: 학생관 가건물 전시실

정신대 사진전

정신대문제의 역사적 자료사진과 할머니들의 현재모습
을 담은 사진을전시한다.

장소: 휴웃길

미인대회 반대의 거리

장소: 생협앞

함께 있는 우리

롤 (희정, 의직95)
 쌀 (경창, 의직95)
 큰님 (정민, 교육95)
 엑스 (은정, 소인95)
 코난 (은주, 특교95)
 꺼리 (선미, 제약96)
 골라 (미웅, 법학96)
 라기 (은아, 신방96)
 별나 (현실, 교공96)
 사과 (연수, 전자96)
 에로 (원영, 사학96)
 원더 (선영, 통계96)
 이지 (선미, 제약96)
 카람 (일억, 전자96)
 큐라 (지연, 국문96)
 번개 (인숙, 정외97)
 아이 (보미, 사회97)
 노을 (영희, 사회97)
 이티 (경희, 사학97)

함께 하는 우리

엠 (성임, 통계96)
 레바 (선영, 법학97)
 버둥 (인경, 법학97)
 도울 (재은, 간호98)
 마니 (지윤, 사과98)
 소다 (정원, 사과98)
 스위티 (은정, 약학97)
 천둥 (지은, 가과98)
 포니 (지안, 가과98)

함께 했던 우리

은초 (혜련, 사복92-여성97)
 짜투리 (승현, 행정92-여성97)
 여울 (여울, 전산94)
 모기 (현수, 약학94)
 라니 (정란, 법학95)
 우주 (은주, 행정95)
 하람 (지윤, 전산95)
 체크 (소영, 국문97)
 당근 (미설, 철학96)
 비비 (세영, 사과97)

그리고,
 이화인 그대들...

3회 페미니즘문화제

발행인 / 박경희(의직95)

편집위원 / 최소연(교공96)

발행일 / 1998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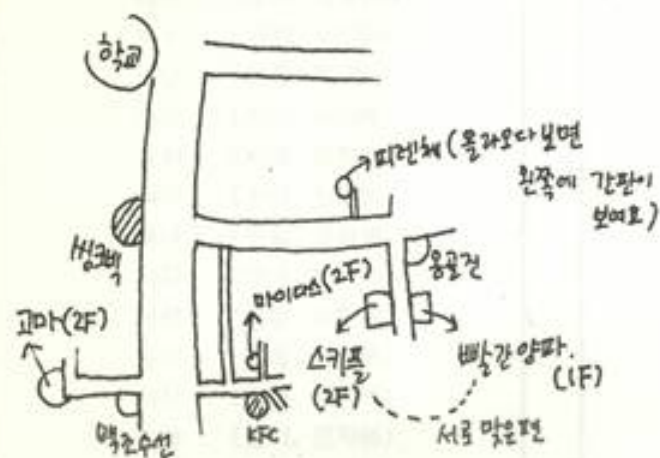
매년국 / 3대 이화여성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대연동 11-1

Tel.380-3582(이화여성위원회)

디자인 / 엑스사단 338-9668

이대앞 맛있는 술집여행



피렌체

364-9898

빨간양파

313-9295

마이더스

365-7351

스카폴

313-8956

고마

364-5950